

국가거점국립대 간 학사교류 활성화 모색

학사교류 통한 KNU10 공동학위제 정착방안 포럼 전북대서 개최... 정책연구 성과 공유·학사교류 필요 요건·실행 방안 제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주도로 국가거점국립대 간 학사교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거점국립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학사교류 활성화 모색을 위해 국가거점국립대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25일 '국립대학 학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KNU10 공동학위제도 정착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 포럼이 전북대에서 개최,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을 비롯해 위원, 학사교류 실무담당자,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충남대 송영신 교수가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사교류 현황'에 대해 발제한 것을 비롯해, 제주대 양창용 교수가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사교류 니즈 분석', 부산대 류광열 교수가 '국내 학사교류 사례', 전북대 박휴용 교수가 'KNU10 학사교류 강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송영신 교수는 현재 학사교류 현황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복수/공동학위제 도입 및 교육과정 모델 개발 △수업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설각/배경 기준 적용, 시간표 개발, 학점부여 방법, △교원 참여 등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 인센티브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학사교류 강화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제주대 양창용 교수는 학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생 중심의 활동 및 프로그램, 그리고 제도화 및 행정, 재정 등에 대한 제안을 조



지난 25일 '국립대학 학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KNU10 공동학위제도 정착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 포럼이 전북대에서 개최,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 수치로 제시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국내 학사교류 사례를 발표한 류광열 교수는 그간 영·호남 교류와 거점국립대 간 원격수업 학점교류 현황을 분석해 데이터 분석 및 학생 피드백을 통한 확대 방안 수립과 홍보 활성화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박휴용 교수는 KNU10 학사교류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대 학사교류 취지와 목표, 실제 추진 모형 등을 제시하고 학사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요건과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궁극적으로 KNU10 통합 가상캠퍼스(가칭 한국대학교)를 구축해 각 대학 사이버캠퍼스 시스템을 통합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강의실 검토 교

양강의를 시작으로 전공강의로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부와 국립대 간 공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상시 협의체계를 갖추고 '국립대연계·교류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활성화 촉진 및 재정지원 근거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학별 특성화전공(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국립대 지원 공유 및 국립대학 특성화 전공을 집중 육성, 온라인 교류과목 개설 및 운영 지원, 거점국립대연합회 출범 지원 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어 신용민 경상국립대 교학부총장, 이길재 충북대 교육혁신본부장,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장세은 서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펼쳤다.

교육부 장세은 서기관은 "대학 내에서 대학 간 학사교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사교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거점국립대 간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야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김동원 총장은 "이번 포럼은 지금까지 학사교류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소중한 의견을 모아 최종 결과물을 산출하고자 하는 자리"라며 "정책연구를 통해 국가거점국립대학 교육역량 제고와 연합체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친환경 포름산 생산 연구 '주목'

전북대 강동성 대학원생, 이산화탄소 기반 친환경 포름산 연구 발표



전북대학교 강동성 대학원생(화학공학부 에너지공학전공 석사과정·지도교수 한지훈)이 이산화탄소 기반 친환경 포름산 생산을 위한 연구 성과를 발표, 세계적 저널에 논문이 게재됐다고 밝혔다.

강 대학원생에 따르면 같은 연구실 출신으로 현재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있는 변재원 박사와 이산화탄소 기반 친환경 포름산을 생산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 기술'에 대한 공정 설계 및 전 과정 평가(LCA) 기법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의 지속가능성을 초기에 정확하게 평가해 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 CCU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입안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

아 화학 및 환경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그린 케미스트리' 최신호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이 논문은 화학 연료로부터 전환되는 포름산 생산 공정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부터 촉매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으로 전환되는 포름산 생산 공정들에 대한 전 과정 평가 결과를 비교한 연구다.

그 결과, 포름산 생산 공정들에 대한 환경 영향 수치를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유틸리티(열과 전기)에 대한 최적의 사용 원료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전기화학적 포름산 생산 전련의 기술환경적 타당성을 제시했다.

지도 교수인 한지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이산화탄소 활용 포름산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다양한 생산 경로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나 같은 친환경 원료의 공공 및 사용을 고려한 연구가 활발히 지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고창터미널 일대 활성화 우수아이디어 시상

'고하이' 팀, 먹거리 자원 활용 상가 활성화 제안 '대상'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인프라추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황지욱)가 관내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28일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고창군 도시재생일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모를 통해 고창 터미널일대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 30건이 접수, 1차 심사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팀이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먹거리 자원을 활용한 상가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한 '고하이'팀(남주영, 이윤현, 김수민, 장희재)이 대상으로 선정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청년 유입을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제안한 '살구청'팀(김형, 신우정, 강수민) ▲중장년층 계층 도입을 통한 관광 아이템을 제안한 개인 지원자 남지원 학생 ▲가로 정은



화와 문화공간 조성을 제안한 '팔색조'팀(김현규, 김지승, 황윤하, 김승현)이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황지욱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고창을 방문해 대상을 견고 현장을 조사하고, 지역민을 인터뷰하며 고창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계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도시공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으로 도시재생을 바라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쇠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청년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고3·학년말 안정적 학사운영 안내

등교수업 원칙으로 교과·차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토록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수능 이후(고3) 및 학년말(초·중·고) 학사운영 내실화 기본 방향'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함께 수능 이후 고3의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학사운영을 위해서다. 또한 초·중·고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먼저 고3의 경우 수능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학생 진로상담, 자기개발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등의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추진토록 했다.

원격수업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원격수업 중심의 학사운영은 지양한다.

특히 수능성적 통지일 이전에는 등교수업을, 이후에는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도록 안내했다.

다만, 실기·면접·논술고사 등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 수강 및 승인받지 않은 체험활동 등에 대한 편법적인 출결처리와 고3 대상 교외 체험학습 신청 유도 및 강요 등은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년말을 맞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교과 및 체험활동 연계 수업을 운영토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경제교육, 자기개발, 진로진학 등 은은프린인 학사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여건과 학생 특성을 고려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내·외 생활지도도 강화한다.

음주·흡연·폭력·성폭력 등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별·학교별 예방 교육 및 생활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교육과 PC방, 노래연습장, 스타벅스, 카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출입이 많은 학교별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학사·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원배 태권도선수권 9일간의 여정 '끝맺음'

제7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 대회가 9일 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25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전라북도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겨루기 1,799명, 품새 644명 등 총 2,443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승부를 겨뤘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대회를 진행, 단 한명의 의심환자도 없이 치러진 모범적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태권도협회 이병하 회장은 "약 2년 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성공적인 대회였다. 특히 전라북도태권도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협력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이뤘다 더욱 값있다"며 "태권도인의 뜻을 담아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가 보다 권위 있고 위상높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칭) 건립을 위한 대선포약 채택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 스타트업 '한자리에'

남원서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 개최 JB글로벌 챌린저 통해 3개 기업 협약 체결

미래 유니콘기업을 꿈꾸는 지역 스타트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모색하는 대규모 행사가 지난 24~26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렸다.

전국 최초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창업보육센터 협의회 등 7개 기관과 중기부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200여 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3일 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24일 개막식 행사에서는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WEEK'을 알리는 스타트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창업기업 간 교류의 장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25일은 예비창업자의 아이템을 해외 시장에서 검증하는 JB글로벌 챌린저를 통해 3개 기업이 199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초기창업기업 글로벌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JB글로벌 인베스트먼트(전북대 창업지원단)를 통해서도 3개 기업이 27만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맺는 성과를 올렸다.



미래 유니콘기업을 꿈꾸는 지역 스타트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모색하는 대규모 행사가 지난 24~26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렸다.

또한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기업이 G-ROAD 판로개척 라이브커머스 마켓에, 초기창업패키지 해외시장개척단 프로그램에 참여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권대규 전북대 창업지원단장은 "전북권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

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공유함으로써 많은 스타트업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와 연대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6일 남원 스위트호텔 세미나실에서 2021 진로진학상담교사 진로교육 역량 강화 전문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진로교육의 방향과 미래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를 통해 진로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전북지역 진로진학상담교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창업교육과 진학지도 방법 관련 강의를 통해 진로진학 교육의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게 교사가 직접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들로 연수를 구성했다.

강사로는 시그머빌 장창우 대표, 드림플랜팅 송미나 대표, 한국범죄학회 염건영 회장 등이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역량기반 교육과정·교수학습법 성과 확산

전주비전대 - 부산과학기술대, 간담회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문용규)는 지난 25일 AI뉴테크전략실에서 부산과학기술대의 교육혁신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법 개선 사례에 대한 우수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나림 학사지원처장, 이원희 교육과정혁신센터장, 김영립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등 7명과 부산과학기술대는 정경숙 교육혁신센터장, 박성희 교양혁신센터장, 조희정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양 대학은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산업체 등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현장 과업 학습 시나리오 개발 및 그간의 노력과 성과 등 우수사례에 대해 상호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분석했다.

또한 학생 역량 향상을 위해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 수립, ▲역량달성도 평가 및 인



증,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대학의 학사 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한 성과관리, ▲교육과 산업을 연결한 학생주도의 문제해결중심 교육 필요성 등의 토론도 이어졌다.

이원희 전주비전대 교육과정혁신센터장은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위해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복합교육과 성과관리로,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해야함은 물론 양 대학 뿐만 아니라 많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각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그로 인한 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